

미래에셋증권 Daily

▶ TODAY'S REPORTS

Mirae Asset FI Weekly

민지희: 연준의 긴축 속도에 대한 불안, 장기금리 상승 요인

기업분석

안타스포츠(2020HK) - 김지은: 중국 토종 스포츠웨어의 약진

금융시장 주요 지표 I, II

2022. 1. 20 (목)

리서치센터

KOSPI (1/19)	2,842.28P(-21.96P)
KOSDAQ (1/19)	933.90P(-10.04P)
KOSPI200 (1/19)	378.21P(-2.80P)
미국 DowJones지수 (1/19)	35,028.65P(-339.82P)
미국 NASDAQ지수 (1/19)	14,340.25P(-166.65P)
중국상해종합지수 (1/19)	3,558.18P(-11.73P)
NIKKEI225지수 (1/19)	27,467.23P(-790.02P)
유럽 STOXX600지수 (1/18)	480.90P(+1.11P)
독일 DAX지수 (1/19)	15,809.72P(+37.16P)
VIX (1/19)	23.85P(+1.06P)
원/달러 환율 (1/19)	1,191.45(+1.31)
엔/달러 환율 (1/19)	114.33(-0.28)
달러/유로 환율 (1/19)	1.13(0.00)
국고채 수익률(3년) (1/19)	2.07(-0.06)
미국채 10년 (1/19)	1.87(-0.01)
독일국채 10년 (1/19)	-0.01(+0.01)
금가격 (1/19)	1,843.20(+30.80)
구리가격 (1/18)	9,692.00(+32.00)
유가(WTI) (1/19)	86.96(+1.53)
국내주식형펀드증감 (1/17)	724억원
해외주식형펀드증감 (1/17)	1,446억원
고객예탁금 (1/18)	703,863억원(-38,726억원)
신용잔고 (1/18)	235,692억원(+56억원)
대차잔고 (1/19)	708,527억원(+2,577억원)

주: 현지 시간 기준

연준의 긴축 속도에 대한 불안, 장기금리 상승 요인

민지희 jihee.min.a@miraeasset.com

FI Check Point

연준 긴축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 높아짐, 미 국채 장기금리 상승 요인

- 미국 12월 소매판매 전월비 1.9% 하락. 미국 소비 둔화 우려에도 미 국채금리 상승
- 인플레이 기대심리 완화를 위해 연준의 금리 인상 필요성 높아졌으나, 빠른 긴축은 미국 경기 둔화를 가속화 시킬 우려
- 3월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 이는 미 국채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를 현 수준에서 소폭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

Fixed Income
Market Issue

1월 금통위 이후 1.50~1.75%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한 국내 채권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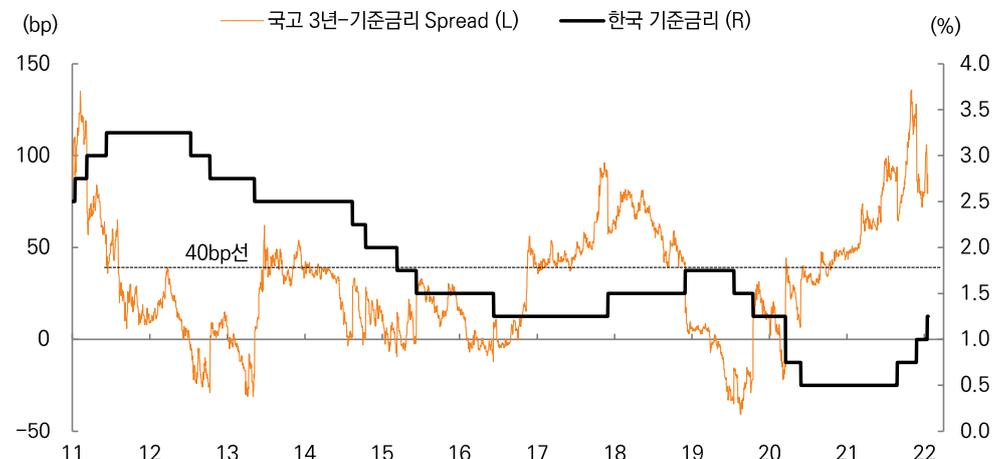
- 기준금리 최소 1차례 이상 인상을 반영하더라도 국고3년-기준금리 스프레드가 현재와 같이 90bp를 보이는 것은 다소 과도하다는 판단
- 국내는 명목임금 상방 압력 등 미국과 같이 인플레이 상방 압력이 지속적일 수 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움. 국내 인플레이션 우려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
- 추가적인 추경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 대선 결과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높은 편

Strategy

국내 장기금리는 1월 FOMC에서 연준의 긴축 스탠스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

- 미 국채 장기금리는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 반영되며 당분간 미 국채 2년과의 스프레드 현 수준인 80bp대 등락 전망
- 국내 장기금리, 미 장기금리에 연동되며 변동성 높을 것. 국고 3년 금리는 기준금리와의 스프레드 고려할 때 축소 여력 있으며 저가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

그림 1. 기준금리 1.75% 인상을 프라이싱 해도, 국고 3년과의 40bp 스프레드는 과도하다는 판단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1. 연준 긴축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 높아지며 미 장기금리 상승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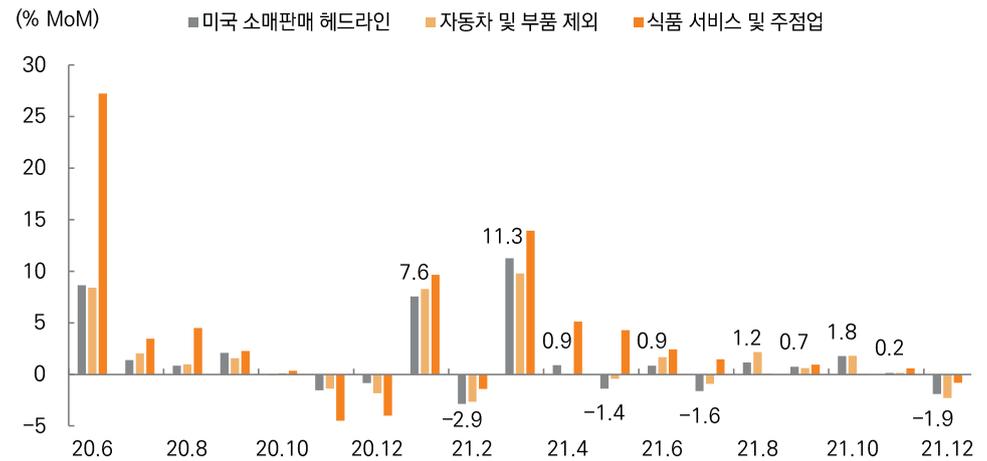
1) 미국 12월 소매판매 부진에도 연준 긴축 경계심 지속

12월 미국 소매판매 지표는 전월대비 1.9% 하락하며 미국 소비는 둔화된 흐름을 보였다(그림2). 우리는 미국 경기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미 국채 장기금리의 추세적인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해 왔다.

한편, 1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전월대비 하락하며 1월 월보에서 전망했던 것과 같이 인플레이 우려 등으로 미국 소비 심리는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그림3). 이처럼 미국 주요 지표들이 미국 경기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직 시장은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를 더 크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미시간대 중장기 인플레이 기대 심리도 3%대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 우려가 심화됐다(그림4). 연준에서 주목하는 중장기 인플레이 기대 심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경우 실제 인플레이 압력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올해 상반기 중 연준의 긴축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2. 미국 12월 소매판매 부진, 경기부양책 부재함에 따라 소비 둔화 흐름 이어질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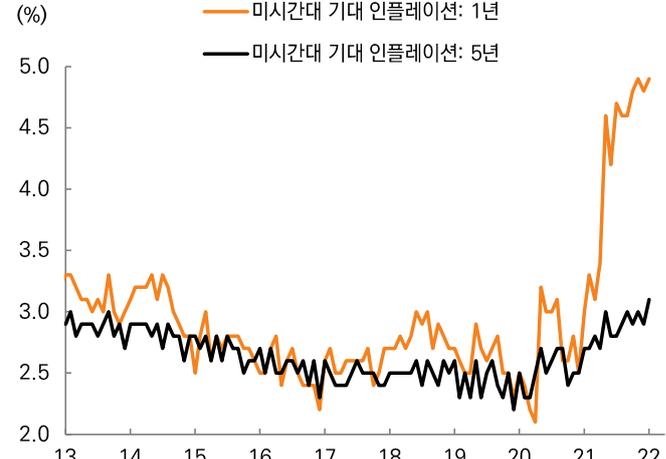
자료: US Census Bureau,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인플레이 상방 압력 높고, 미국 소비 심리 위축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인플레이 기대 심리 완화를 위해 연준의 금리 인상 필요성 높아짐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2) 연준 금리 인상 우려 높아져 미국 10-2년 스프레드 당분간 현 수준 등락 전망

다음 주 1월 FOMC를 앞두고 최근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상 시점으로 예상되는 3월 회의에서 50bp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며 미 국채 장단기 금리가 크게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 채권시장에 반영된 인플레이 기대심리(BEI)는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 국채 장기금리가 당분간 긴축 경계심을 반영해 상승해 변동성 높은 장세를 이어가겠으나, 앞서 분석했던 미국 경기 모멘텀 약화에 따라 점차 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미국 인플레이 경로의 불확실성이 아직 높은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초기인 올해 상반기 중 연준의 긴축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졌다.

이처럼 인플레이 상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예상보다 빠르게 단행하는 경우, 미 국채 장단기 스프레드는 현 수준인 80bp대에서 당분간 등락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여전히 미 국채 2년 금리는 연준의 빠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선반영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연준의 긴축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한 추가적인 시그널을 확인한 후 미 국채 장기금리는 경기 모멘텀을 반영하며 점차 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

표. 미국 금리 인상 시기 정리

연도	미국 기준금리 (%)	미 국채 2년 금리 (%)	미 국채 10년 금리 (%)	10-2년 Spread (bps)	미국 10년 BEI (%)	미국 10년 TIPS (%)
2014	0.25	0.45	2.53	208.16	2.10	0.42
2015	0.25	0.66	2.12	146.64	1.71	0.41
	0.5	0.82	1.80	98.48	1.57	0.23
2016	0.75	1.22	2.46	124.08	2.01	0.45
	1	1.27	2.31	103.18	1.89	0.41
2017	1.25	1.47	2.28	80.95	1.82	0.46
	1.5	2.08	2.69	60.31	2.06	0.63
2018	2	2.63	2.91	27.77	2.12	0.79
	2.25	2.83	3.08	24.84	2.03	1.05
현재(1/14)	0.25	0.97	1.78	81.73	2.48	-0.71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 주: 기준금리를 제외하면 모두 평균 값임.

그림 5. 연준 금리 인상 속도 가속화 되고 경기 둔화 빨라지면 결국 미 국채 금리 스프레드 축소 요인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2. 국내 장기금리는 연준의 긴축 스탠스 확인하는 것이 필요

1) 연준 긴축 우려로 국내 장기금리도 1Q 중 변동성 높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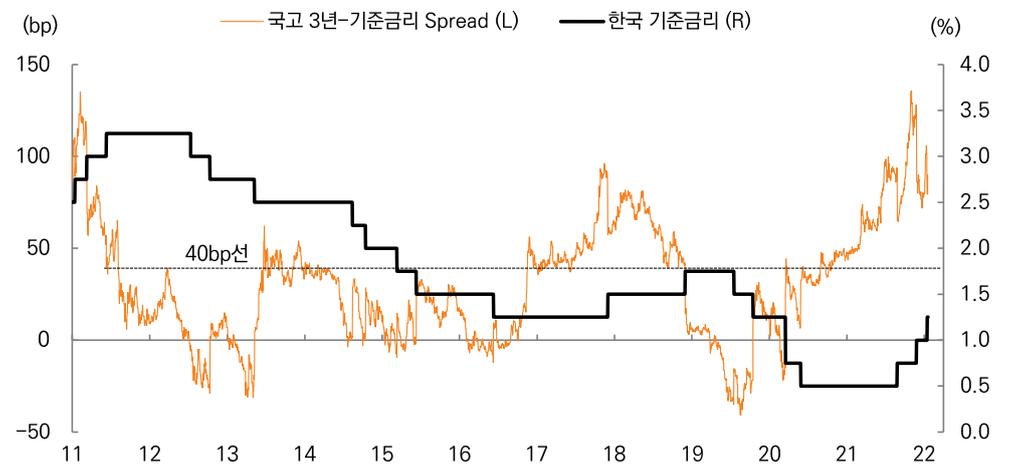
한편, 1월 금통위에서 한은 총재의 추가 금리 인상 시사 및 매파적 스탠스 강화되면서 국고채 장단기 금리는 전 고점까지 상승폭을 확대했다. 금통위 이후 선도금리시장(FRA)에서는 다시 1년 내 기준금리가 1.75% 수준까지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며 국내 금리 상승을 견인했다.

먼저 지난 주 금통위에서 한은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의 근거로 국내 인플레이 상방 압력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명목임금의 상방 압력과 같이 미국과 유사하게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일 수 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게다가 연준의 빠른 긴축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글로벌 경기 둔화가 가속화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한은의 금리 추가 인상 여건이 마련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현재 시장의 기대처럼 기준금리가 1.50~1.75%까지 인상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2.1%대의 3년 금리는 기준금리와 40bp의 스프레드를 보이는 수준이기 때문에 다소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국고 3년-기준금리 스프레드의 축소 여력을 고려할 때, 단기물은 저가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유지한다(그림6).

그러나 앞서 언급한대로 미 국채 장기금리는 상반기 중 연준의 빠른 긴축에 대한 경계심을 반영해 변동성 높은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장기금리는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경로에 대한 추가적인 시그널을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스탠스가 필요하겠다.

그림 6. 기준금리 1.75% 인상을 프라이싱 해도, 국고 3년과의 40bp 스프레드는 과도하다는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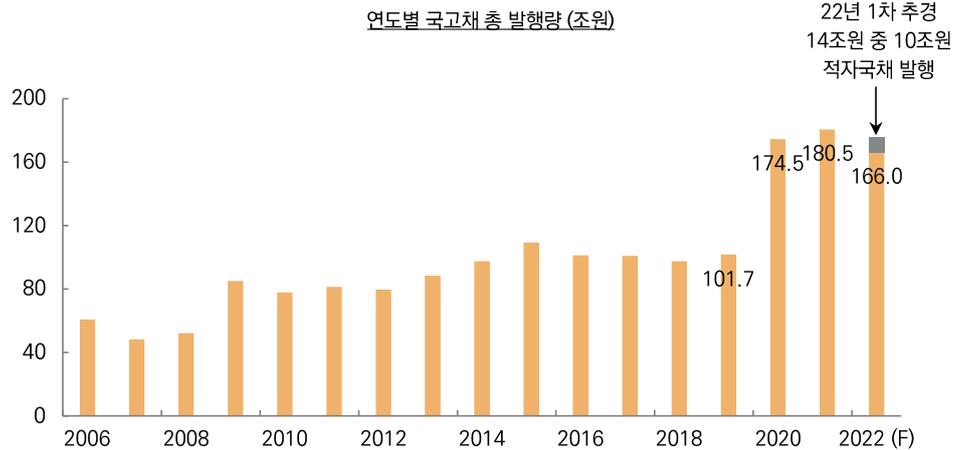
2) 국내 추경 경계감 이어졌으나, 외국인 매수세는 비교적 양호한 흐름 기록

현재 국내 채권시장은 통화정책 긴축에 대한 경계심 외에도 올해 확대 재정 지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추가 약세 재료로 작용하고 있다. 당초 2022년 국고채 총 발행 규모로는 166조원이 발표됐다. 그러나 연초 14조원 규모의 추경에 이어 올해에도 국내 확대 재정 기조로 인해 2020년과 21년보다 국고채 발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장단기 금리 상승을 견인했다.

최근 정부에서 이번 추경 14조원 중 10조원을 적자국채로 발행할 것이라고 언급하자 연초 추경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 2Q 중 새로운 행정부에서 확대 재정 기조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아직 대선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어 선거 결과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현 시점 우리는 향후 집행될 수 있는 추경 가능성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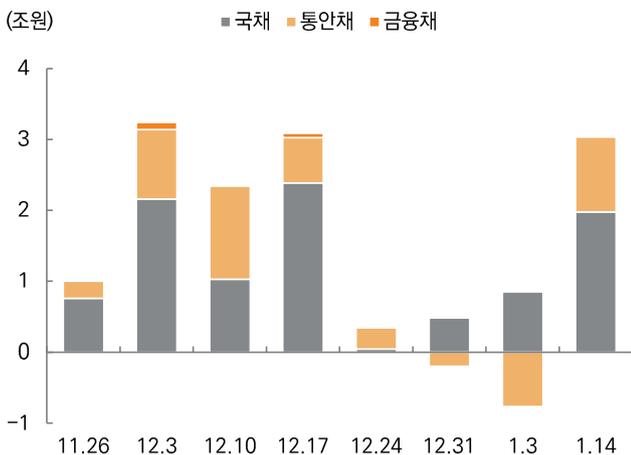
한편, 연초 국내 채권시장의 투자심리는 취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외국인 수급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주에는 한은의 금리 인상 우려가 다시 심화됐음에도 외국인은 단기물을 대량으로 순매수하면서 국내 채권 금리의 추가 상승을 제한했다.

그림 7. 이번 추경으로 발행되는 적자국채 10조원 포함 시 올해 국고채 예상 발행 규모는 20년과 유사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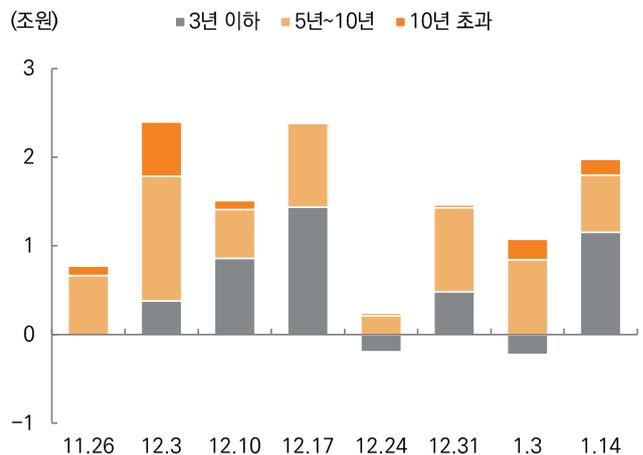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외국인의 주간 국채 및 통안채 순매수 현황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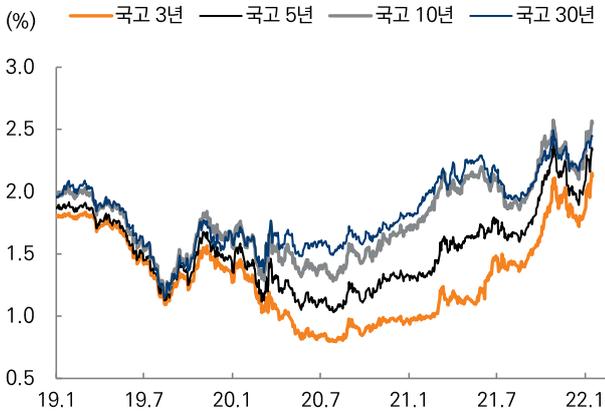
그림 9. 외국인의 만기별 국채 순매수 현황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Fixed Income Market Chart

국고채 주요 금리 변화



자료: 금융투자협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국고채 스프레드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한국은행,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외국인의 원화채권 수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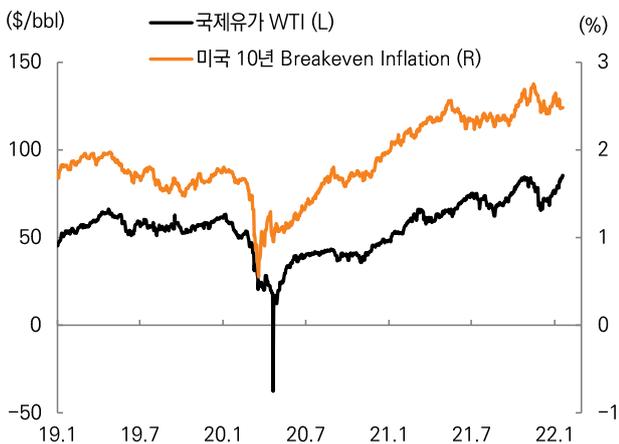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EMBI 스프레드와 미국 장기금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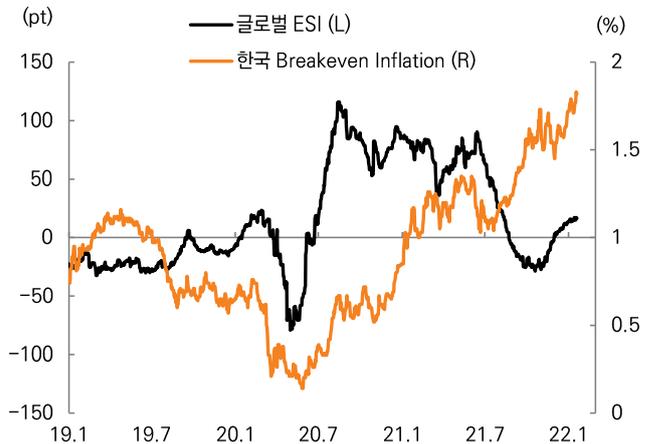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WTI 가격과 미국 기대인플레이션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경제와 한국 기대인플레이션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2022년 1월 Event Calend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한국) 국고채 30년물 입찰 (3.3조원)	4	5	6	7 (미국) 12월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	8
9	10 (한국) 국고채 3년물 입찰 (2.5조원)	11 (한국) 국고채 2년물 입찰 (0.9조원) 국고채 50년물 입찰 (0.4조원) (미국) 국채 3년물 입찰 (520억달러)	12 (미국) 12월 CPI 발표 국채 10년물 입찰 (350억달러)	13 (미국) 국채 30년물 입찰 (220억달러)	14 (한국) 1월 금통위	15
16	17 (한국) 국고채 10년물 입찰 (2.6조원)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 (미국) 휴장 (마틴루터킹 데이)	18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	19 (미국) 국채 20년물 입찰 (200억달러)	20 (미국) TIPS 10년물 입찰 (170억달러)	21	22
23	24 (한국) 국고채 5년물 입찰 (2.5조원) (미국) 국채 2년물 입찰 (540억달러)	25 (미국) 1월 FOMC 국채 5년물 입찰 (550억달러) (한국) 2021년 4Q GDP 발표 국고채 20년물 입찰 (0.8조원)	26 (미국) 1월 FOMC	27 (미국) 국채 7년물 입찰 (530억달러) (캐나다) BOC 통화정책회의	28	29
30	31 (한국) 설날 연휴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미국 재무부, FRB, 언론 참고,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안타스포츠 Anta Sports (2020 HK)

중국 토종 스포츠웨어의 약진

Bloomberg
최고목표주가

HKD 194.60
상승여력: 69.2%

김지은 jinzhien@miraesasset.com

투자포인트

중국 스포츠산업의 구조적인 성장 기대

- 중국 스포츠산업은 중국 정부의 주요 장려산업으로 25년까지 CAGR 13% 성장 전망
- Q: 육성 정책으로 스포츠 참여율 증가, 게임산업 · 사교육 시장 규제 강화로 반사 수혜
- P: 소비능력 향상, 레저활동 범위 확대, 수요 다각화에 따른 하이엔드 마켓 성장 견인

M&A 및 JV의 달인, 경쟁력 지속 강화

- 멀티 브랜드 전략 추진으로 사업 다각화, 매스 및 하이엔드 마켓 동시 공략
- 25년까지 최소 40억 위안 R&D 투자로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 발전 도모

중국 MZ세대 사로잡는 마케팅 전략 추진

- 감성 자극 브랜드 마케팅 적극 활용 1) 스타+팬덤+트렌드+화제성: NBA, 대세 연예인 2) '애국소비' 자극: 베이징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로 '국민 브랜드' 이미지 자리매김
- 온라인 마케팅 강화 및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활용한 'ANTA' 메인 브랜드 노출 극대화

기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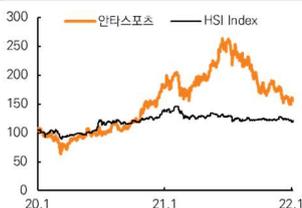
제2의 '나이키'를 넘어 제1의 '안타'로 자리매김

- 20년 중국 토종 스포츠웨어 중 1위, 중국 전체 스포츠웨어 중 3위 (M/S 15.4%)
- FILA, KOLON SPORT, DESCENTE 등 해외 브랜드 중국 라이선스 사업권 보유
- 19년 유럽 아웃도어 프리미엄 스포츠용품 회사 Amer Sports 그룹 지분 58% 인수
→ Salomon, Arc'teryx, Peak Performance, Atomic, Wilson 등 브랜드 보유

밸류에이션

- 22년 P/E 26배(5년 평균 P/E 30배), 20년/21년 P/E 54배/33배 대비 할인돼 거래 중
- 향후 주가 모멘텀: 1) '애국소비' 열풍 지속: 미중 관계 갈등 지속, 메가 스포츠 이벤트 개최, 애국소비 분위기 조성 등 자국 브랜드 선호도 당분간 지속 예상 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쟁사 생산 차질, 운송비 인상 등으로 공급 부족 이슈 반사 수혜

Key data



현재주가 (22/01/18, HKD)	115.00	시가총액 (십억HKD)	310.9	
거래소	Hongkong	시가총액 (조원)	47.57	
EPS 성장률 (22F, x)	27.3	Bloomberg Rating		
P/E (22F, x)	25.9	매수	보유	매도
MKT P/E (22F, x)	10.1	90%	6%	4%
배당수익률 (%)	0.93			

Share performance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0.5	-38.2	-12.3
상대주가	-3.3	-28.2	5.0

Earnings and valuation metrics

결산기 (12월)	2018	2019	2020	2021F	2022F	2023F
매출액 (백만CNY)	24,100.0	33,927.8	35,512.0	47,341.1	57,886.6	70,035.7
영업이익 (백만CNY)	5,694.6	8,693.2	9,150.0	11,728.5	14,747.0	18,231.9
영업이익률 (%)	23.6	25.6	25.8	24.8	25.5	26.0
순이익 (백만CNY)	4,102.9	5,344.1	5,162.0	7,756.0	9,875.9	12,417.9
EPS (CNY)	1.53	1.99	1.92	2.85	3.63	4.55
ROE (%)	27.8	29.8	23.4	27.8	28.8	29.4
P/E (배)	21.6	31.4	53.9	33.0	25.9	20.4
P/B (배)	5.6	8.4	11.6	8.4	6.8	5.4

자료: 안타스포츠,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금융시장 주요 지표 I

2022. 1. 20 (목)

한국/아시아

(p, %)

	Price	1D	1W	1M	3M	1Y
KOSPI (1/19)	2,842.28	-0.77	-4.38	-4.07	-5.49	-8.10
KOSDAQ (1/19)	933.90	-1.06	-5.79	-5.72	-6.02	-2.49
KOSPI200 (1/19)	378.21	-0.73	-4.17	-3.36	-3.81	-10.24
일본 NIKKEI225 (1/19)	27,467.23	-2.80	-4.51	-1.68	-4.32	-4.07
중국 상해종합 (1/19)	3,558.18	-0.33	-1.09	-0.99	-1.02	-0.23
홍콩 항셱 (1/19)	24,127.85	0.06	-1.12	6.08	-7.26	-18.60
홍콩 HSCCI (1/19)	8,441.69	-0.09	-1.99	4.96	-8.97	-28.06
대만 TWSE (1/19)	18,227.46	-0.82	-0.81	3.16	7.92	14.80
인도 SENSEX (1/19)	60,754.86	0.00	-0.65	8.84	-0.28	22.99
베트남 VSI (1/19)	1,442.79	0.27	-4.48	-2.34	4.19	27.57
인도네시아 JCI (1/19)	6,591.98	-0.33	-0.83	0.69	-0.62	4.27

미국/유럽

(p, %)

	Price	1D	1W	1M	3M	1Y
미국 DowJones (1/19)	35,368.47	0.00	-2.54	1.25	-0.66	14.35
미국 S&P500 (1/19)	4,577.11	0.00	-3.16	0.20	0.60	20.48
미국 NASDAQ (1/19)	14,506.90	0.00	-4.49	-3.16	-4.66	9.92
유로 STOXX50 (1/19)	4,268.28	0.25	-1.11	3.92	2.71	18.71
독일 DAX30 (1/19)	15,809.72	0.24	-1.25	3.74	2.18	14.44
영국 FTSE100 (1/19)	7,589.66	0.35	0.50	5.44	5.55	13.06
브라질 보베스파 (1/19)	106,668.00	0.28	2.78	-0.50	-3.72	-12.02
러시아 RTS(\$)(1/19)	1,414.68	3.45	-12.28	-9.18	-24.27	-3.80
필라델피아반도체 (1/19)	3,612.19	-3.09	-7.41	-3.22	5.87	16.77
나스닥헬스케어 (1/19)	993.62	0.00	-6.38	-12.40	-18.42	-22.69
VIX (1/19)	23.85	4.65	35.36	4.29	58.89	2.62

환율

(각국 통화 단위, %)

	Price	1D	1W	1M	3M	1Y
원/달러 (1/19)	1,191.45	0.11	0.09	0.04	1.22	8.03
달러/유로 (1/19)	1.13	0.16	-0.87	0.57	-2.41	-6.48
엔/달러 (1/19)	114.33	-0.24	-0.27	0.63	0.30	10.04
원/엔(100엔) (1/19)	1,039.24	-0.17	0.44	-0.81	0.59	-2.05
위안/달러 (1/19)	6.35	-0.12	-0.21	-0.48	-0.75	-2.07
달러인덱스 (1/19)	95.59	-0.15	0.71	-1.00	1.94	5.62
원/헤알 (1/19)	218.79	2.37	1.46	5.40	5.23	6.38
헤알/달러 (1/19)	5.45	-2.21	-1.36	-5.09	-3.81	1.72

에너지

(US\$, %)

	Price	1D	1W	1M	3M	1Y
원유 WTI (1/19)	86.96	1.79	5.23	27.45	5.41	64.14
원유 Brent (1/19)	87.77	0.30	3.66	22.72	3.73	57.01
원유 Dubai (1/19)	86.55	0.97	5.45	25.84	5.05	59.86
휘발유 NYMEX (1/19)	245.70	1.04	2.77	17.56	-0.93	59.74
천연가스 NYMEX (1/19)	4.03	-5.88	-17.01	5.14	-21.19	58.33
석탄 ICE (1/19)	161.75	-0.34	16.37	10.79	-29.21	139.63
플라실리콘 (1/19)	32.05	4.88	4.88	6.83	-10.50	197.03
태양광 모듈 (1/19)	0.21	0.00	0.00	-1.44	-7.66	22.02

국내금리/채권

(%, bp)

	Price	1D	1W	1M	3M	1Y
한국 기준금리 (1/19)	1.25	0.00	25.00	25.00	50.00	75.00
CD(91일) (1/19)	1.46	1.00	15.00	19.00	37.00	77.00
LIBOR(3개월) (1/18)	0.25	0.60	0.96	4.14	12.58	3.00
국고3년 (1/19)	2.07	-5.40	7.50	33.30	23.70	109.90
국고10년 (1/19)	2.54	-1.60	10.90	43.00	14.90	82.60
회사채3년(AA-) (1/19)	2.65	-4.00	6.90	27.30	33.50	51.30

금속

(US\$, %)

	Price	1D	1W	1M	3M	1Y
철광석 DCE(위안) (1/19)	746.50	3.82	1.56	9.54	3.25	-35.70
중국 열연(위안) (1/19)	4,840.00	0.88	0.52	-0.12	-16.34	6.70
구리 LME (1/18)	9,692.00	0.33	0.62	1.97	-3.04	21.39
알루미늄 LME (1/18)	3,006.00	0.33	1.49	10.88	-2.28	51.51
금 COMEX (1/19)	1,843.20	1.70	0.87	2.76	3.48	0.16
은 COMEX (1/19)	24.23	3.15	4.41	8.78	0.25	-4.30

해외 채권

(%, bp, 하이일드/리츠지수 변화율: %)

	Price	1D	1W	1M	3M	1Y
미국채 2년 (1/19)	1.08	1.50	14.30	42.70	60.10	93.90
미국채 10년 (1/19)	1.87	-0.90	12.20	44.30	16.30	77.30
독일국채 10년 (1/19)	-0.01	0.60	4.70	35.40	9.00	51.40
일본국채 10년 (1/19)	0.14	0.10	1.30	10.30	5.30	8.70
인도국채 10년 (1/19)	6.60	-2.70	0.50	16.50	26.30	69.50
중국국채 10년 (1/19)	2.73	-1.20	-6.10	-12.40	-24.00	-42.80
브라질국채 10년 (1/18)	11.57	16.40	3.70	74.80	-28.20	411.70
미국하이일드채권지수(p) (1/18)	2,431.20	-0.36	-0.41	-0.51	-0.38	3.62
FTSE글로벌리츠지수(p) (1/19)	3,618.78	-1.18	-2.51	-0.37	0.57	26.56

농산물/운송/반도체

(US\$, %)

	Price	1D	1W	1M	3M	1Y
옥수수 CBOT (1/19)	610.50	1.83	1.92	3.30	14.70	16.06
소맥 CBOT (1/19)	796.50	3.58	5.11	2.41	7.45	18.48
대두 CBOT (1/19)	1,391.25	2.20	0.00	7.66	13.66	0.40
설탕 ICE (1/19)	19.07	2.20	3.98	2.58	0.69	18.45
천연고무 TOCOM(엔) (1/19)	238.40	2.32	4.10	7.87	6.00	-26.35
BDI (p) (1/18)	1,644.00	-5.03	-23.57	-30.90	-65.40	-5.52
SCFI (p) (1/14)	5,094.36	-0.30	-0.30	5.89	11.03	77.48
DDR4 8G (1/19)	3.88	0.00	0.26	9.76	-0.65	16.36
NAND TLC 128G (1/19)	1.99	0.00	0.00	-0.05	-3.25	20.82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금융시장 주요 지표 II

2022. 1. 20 (목)

유가증권시장			01/19(수)	01/18(화)	01/17(월)	01/14(금)	01/13(목)
가격 및 거래량 지표	KOSPI		2,842.28	2,864.24	2,890.10	2,921.92	2,962.09
	이동평균	20일	2,955.02	2,961.66	2,966.60	2,972.98	2,977.20
		60일	2,968.03	2,971.48	2,974.08	2,976.02	2,977.44
		120일	3,044.36	3,047.55	3,050.80	3,053.80	3,056.25
	이격도	20일	96.18	96.71	97.42	98.28	99.49
		60일	95.76	96.39	97.18	98.18	99.48
	거래대금(억원)		96,490.7	100,409.7	103,965.1	107,997.4	114,589.8
시장지표	투자심리도		30	30	40	50	50
	ADR		86.40	92.28	91.39	98.64	98.98
코스닥시장			01/19(수)	01/18(화)	01/17(월)	01/14(금)	01/13(목)
가격 및 거래량 지표	KOSDAQ		933.90	943.94	957.90	971.39	983.25
	이동평균	20일	994.91	998.05	1,000.38	1,002.55	1,004.37
		60일	1,002.05	1,003.34	1,004.18	1,004.80	1,005.18
		120일	1,010.19	1,011.14	1,012.06	1,012.83	1,013.42
	이격도	20일	93.87	94.58	95.75	96.89	97.90
		60일	93.20	94.08	95.39	96.67	97.82
	거래대금(억원)		77,490.0	81,798.9	78,528.2	93,056.9	100,449.7
시장지표	투자심리도		20	20	20	30	40
	ADR		88.87	94.91	94.34	96.35	98.98
자금지표			01/19(수)	01/18(화)	01/17(월)	01/14(금)	01/13(목)
국고채 수익률(3년, %)			2.07	2.13	2.15	2.04	1.95
AA- 회사채수익률(무보증3년, %)			2.63	2.67	2.70	2.61	2.52
원/달러 환율(원)			1,191.45	1,190.14	1,192.65	1,187.27	1,187.80
원/100엔 환율(원)			1,039.24	1,040.99	1,039.13	1,041.59	1,039.48
CALL금리(%)			-	1.26	1.25	1.26	1.03
국내 주식형펀드 증감(억원, ETF제외)			-	212	551	70	-19
해외 주식형펀드 증감(억원, ETF제외)			-	70	1,380	45	-193
주식혼합형펀드 증감(억원)			-	-138	-308	9	-12
채권형펀드 증감(억원)			-	1,204	-1,490	-1,075	-1,990
MMF 잔고(억원)			-	1,548,024	1,580,250	1,600,114	1,586,682
고객예탁금(억원)			-	703,863	742,589	653,401	640,954
미수금(억원)			-	2,734	2,501	2,314	2,832
신용잔고(억원)			-	235,692	235,636	234,831	235,017
해외 ETF 자금유출입			01/19(수)	01/18(화)	01/17(월)	01/14(금)	01/13(목)
한국 관련 ETF(억원)			-	-	-	-	512.2
이머징 관련 ETF(억원)			-	-	-	-13.6	288.9
아시아 관련 ETF(억원)			0.8	17.2	0.7	197.7	441.2
글로벌(선진) 관련 ETF(억원)			-	30.0	3.2	67.8	252.8
Total(억원)			0.8	47.2	3.9	251.9	1495.0

* 해외상장 ETF는 1) 미국, 유럽, 홍콩 시장에 상장된 한국 노출도가 있는 ETF를 모두 선별한 후, 2) 동 ETF들의 일간 자금유입액 중에서 한국의 비중을 계산하여 총합한 액수. 추종 인덱스의 리밸런싱은 분기별로 이뤄지나 비중은 지수 레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대략적인 추정치로 계산할 것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지 않음